



겨울웃 입은 백제대로 가로수

선선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8일,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가로수에 트리허그(장복소)가 설치돼 있다.

“특별광역권 개념 신설 5극 3특 소외 해결책”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지방시대위원회 설계도에 3특 존재감 희미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3특 포함여부 불명확”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법 개정 제시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정책이 실제로는 5극 중심으로 설계되어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명칭과 달리 실제 추진구조는 5극 중심, 3특 주변부”의 비대칭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며 “특히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과정에서 3특 포함 여부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전북이 재정지원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따르면, 2026년부터 10조6천억 원 규모의 포괄보조금과 함께 초광역특별계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법률’은 초광역권을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시·도 행정구역에 넘어서는 권역”으로 정의하고 있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3특은 국토공간 상 구심력을 가지는 초광역권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정자립도 23.6%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자, 3특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조건”이라며 “제주와 세종은 보통교부세 특례를 가졌지만, 전북은 재정특례 입법노력이 연이어 좌절된 상황에서 초광역특별계정마저 배제된다면 이는 사실상 국가균형성장 전략에서 소외를 의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방시대위원회 5극 3특 설계도에서 주요 전략사업별 투자계획을 보면 AI혁신거점 3조1천억 중 전북

은 일부만 포함됐고, 초광역교통망 구축은 거의 5극 중심으로 언급되며, 지역성장펀드 3조5,000억원도 ‘권역별 조성’으로 명시돼 3특의 포함 여부가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

전북연구원은 해결방안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 제2조 제7호 개정을 제시했다. 현행 초광역권 정의에 “특별자치도가 독자적 발전전략 수립 또는 인접지역과의 연계·협력을 위해 설정한 권역(특별광역권)”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천지는 연구위원은 “법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립적인 초광역권으로 인정받게 되면,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패키지형 지원과 초광역특별협약 체결 등 5극 3특에 관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조 안에 자연스러운 편입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초광역특별계정 운용지침에 3특 최소 배분비율을 명시하고, 부처직접편성과 지자체 자율편성의 이중 트랙으로 운영해 3특도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은 “5극 3특이라는 정책 명칭이 무색하게 3특이 배제되는 구조는 국가균형성장의 가치에 위배된다”며 “조속한 법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진정한 ‘5극 3특’ 균형성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탄소중립시대 맞아 도정 4년, 전북 미래 좌우”

민주 이원택 의원, 건협 전북자치도회 등과 간담회... 민생 행보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체육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민생행보를 시작했다.

특히 이 의원은 “향후 도정 4년이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시기다”며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삼성 및 국내 기업은 물론 유럽을 비롯한 세계 유수기업들의 귀와 눈이 새만금 지역으로 쏠리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책마련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순간이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8일 이원택 의원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에 따르면 이날 이원택 국회의원의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물량 감소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재철 회장은 “지역건설산업이 물량과 공사비 부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자재·장비 등 연관산업까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유럽을 비롯한 세계 선진국들이 2030년 이후 탄소세를 한국기업에게 전가할 직면까지 이른 만큼 새만금 지역의 풍력 및 에너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친환경 새만금을 향한 삼성그룹 및 유수기업들의 눈이 자연스럽게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적극 살려 전북을 환태평양 시대 주역으로 발돋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면 전북은 영원히 인구소멸지역으로 낙인찍혀 낙후를 탈피하지 못한다”며 “향후 도정

또한 “전북이 지난 30여년동안 외발



8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적 발상에만 의존해 지금까지 낙후 전북을 탈피하지 못한채 허우적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며 “따라서 지금은 이재명정부와 발맞춰 새만금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내발적 발전전략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열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지금 유럽을 비롯한 세계 선진국들이 2030년 이후 탄소세를 한국기업에게 전가할 직면까지 이른 만큼 새만금 지역의 풍력 및 에너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친환경 새만금을 향한 삼성그룹 및 유수기업들의 눈이 자연스럽게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적극 살려 전북을 환태평양 시대 주역으로 발돋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면 전북은 영원히 인구소멸지역으로 낙인찍혀 낙후를 탈피하지 못한다”며 “향후 도정

4년은 전북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나아가 하는가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는가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이재명정부에서 시행하고 재생에너지에 적극 주력할때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건설 분야 발전을 위해 새만금 사업 예산 확대와 속도감 있는 개발이 최우선 과제다”며 “지역간 연결도로, 철도 확충, 국가정원사업, RE100 기반대규모 산단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물량을 확보하고 지역기업 우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도내 지역 체육인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전북체육의 위상은 사라지고 전국에서 꼴지권을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며 “체력은 국력이다. 옛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전북체육발전에 큰 역할이 있다면 이를 잊지 않고 더욱더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7행시로 그리는 전북의 미래 | 도, 17일까지 도민 참여 SNS 이벤트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이 직접 지역의 미래상을 표현해보는 ‘변화상 7행시 짓기’ 이벤트를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진행한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진해 온 다양한 지구·특구·단지 조성 사업과 미래 비전을 도민이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했다.

제시어는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 △지속가능환경 △

새만금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핀테크육성지구 △친환경산업관 광 등 전북의 변화상을 상징하는 7글자로 구성된다. 참가자는 이 가운데 한 단어를 선택해 7행시를 만들어 개인 SNS에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의 링크를 신청폼에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이벤트 응모는 전용 신청폼(<https://naver.me/xh16lhl1>)을 통해 가능하다.

이번 이벤트는 도청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주요 SNS 채널을 통

해 운영되며,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커피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우수 응모작은 향후 전북 홍보 콘텐츠 제작에 활용될 예정이다.

강영석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도민이 전북의 미래를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참여형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SNS를 통한 자연스러운 확산으로 더 많은 분들이 전북의 미래 비전에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진안고원
JINAN GOWON고향사랑기부제
진안에

기부하고 혜택받고!

고향에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세요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

지역특산물 등 진안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지급

- 기부액의 30%
- 진안군 답례품 : 돼지고기, 홍삼, 수삼(인삼), 사과, 꿀, 지역상품권, 숙박시설할인권, 진안고원 온라인 상품권 등

문의 : 진안군청 인구활력팀 063-430-2830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 분 16.5% 추가 공제
- ※ 1인당 연간 500만원(2025년부터 2,000만원) 이내

기부 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기부금납부,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원스톱 시스템)
-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창구(전국 모든 지점)